

노인에 대한 주부들의 태도

Attitudes of Housewives towards the Elderly

조명희*
서원대학교 생활복지학과

Cho, Myoung-Hee
Dept. of Living Welfare, Seowo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ttitude of housewives towards the elderly people. Three hundred and eighty-one housewives were selected, and a set of questionnaire was used to collect data. The Instrument for this study consisted of 20 item semantic differential format. The results are as follows: Housewives hold a slightly negative attitude towards the old. The main reasons for that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educational level, religion, economic level, and marital satisfaction. By using a cluster analysis, the housewives could be divided into four groups. Among them, a group with positive attitudes towards the old had an experience living with par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revealed that the data on the attitudes of housewives towards the elderly will offer valuable information in developing education programs to change their negative attitudes.

Key Words : attitudes towards the elderly, attitudes of housewives

I. 서론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2019이면 노인인구비율이 14%가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다른 국가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변화의 폭과 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노인의 삶에 대한 기대 수준과 욕구는 다양해지고 있으나 국가의 노인복지제도나 국민들이 노인을 대하는 태도는 그에 적절하게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사회에서는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연장자로서 권위를 유지하고 존경을 받을 수 있게 하였으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의 지식과 경험은 더 이상 존경을 받게 하는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어 노인의 지위를 저하시

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가구형태의 분포를 살펴 보면 자녀동거가구 43.5%, 노인부부가구 26.6%, 노인독신가구 24.6%, 기타노인가구 5.4% 순이며, 과거보다 자녀동거가구는 감소하고 있고 노인부부가구와 노인독신가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타노인가구는 손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5). 자녀동거노인가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노인가구의 절반 정도는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가족구성원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노인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될 것이다. 또한 부모님의 몸이 불편하여 다른 사람의 간호·수발이 필요해 질 경우 가족이 함께 간호하겠다는 응답이 61.8%로 가족의 부모부양 의지가 약화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5). 그러나 가족이 함께 간호 한다고 해도 주부양자는 며느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조명희, 2003). 결국은 노인을 직접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은 며느리를 중심으로 딸과 여성배우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노인부양의 역할을 주로 담당해왔던 며느

* Corresponding author: Cho, Myoung-Hee
Tel: 043) 299-8763
E-mail: kcmhee@seowon.ac.kr

리를 포함한 여성들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노부모부양스트레스를 해소하기 힘든 상황이 자주 발생하면서 노인학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고보선 등(2004)에 의하면 노인의 학대 경험은 정신적 학대(32.6%), 언어적 학대(26.0%), 경제적 학대(24.4%), 방임(18.2%), 신체적 학대(7.0%)로 노인들의 학대 경험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2003; 김순예, 2005재인용)에 의하면 노인 3명 중 1명이 자녀들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부가 노인에게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노인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더구나 21세기는 장수시대가 되어 노인인구의 증가가 심각한 정도로 가속화되면서 노인들의 사회 변화 적응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이 아닌 세대가 노인에게 가지고 있는 태도를 규명하는 일은 요즘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노인학대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일이다. 특히 노인들과 가장 빈번하게 실질적으로 부양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주부들의 노인에게 대한 태도는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시급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노인에게 대한 태도 연구는 주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부양과 교류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주부들의 태도 규명을 통해 노인세대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노인들의 적응과 삶의 질 향상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태도와 관련된 변인을 심층 분석하여 노년기 적응과 삶의 질 향상 방안과 노인과의 세대 간 이해 형성을 체계화 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에게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는 1950년대 이후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나타난 노인에게 대한 부정적 시각과 관련된 문제의 원인과 양상을 파악하고자 고정관념, 편견 등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기 시작했다. Tuckman과 Lorge(1952)는 노인에게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태도조사 문항으로 노인에게 대한 오해(misconception)와 상투적 관념(stereotypes)으로 구성되는 문항을 사용하여 심리학 강의를 받은 대

학원생을 대상으로 노인에게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노년기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건강이 나빠지고 외롭고 신체적 정신적 힘이 쇠퇴하는 시기로 생각하고 있으며 부정적 반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들의 또 다른 연구(1953)에서 대학원생들의 동일한 조사문항에 대한 부정적 반응률이 43%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Tuckman과 Lorge는 미국사회가 노인이 적응해서 생활하기에는 힘든 사회라고 말하고 있다.

橋覺勝(1952)은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관을 조사하였는데 노인에게 대한 희망사항으로는 시대 감각을 갖는 것과 간섭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며, 노인의 성격에 대해서는 운운·다정하면서도 자기중심적인 것, 가사를 도와주면서도 잔소리를 하는 것, 완고한 것, 말이 장황한 것, 투덜거리는 것 등을 특성으로 들고 있다.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Tuckman과 Lorge에 의해 개발된 조사문항 이외에 노인에게 대한 태도를 정서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형용사 쌍들로 이루어진 노화의미분별척도(Aging Semantic Differential Scaling; SD법)가 있다. Sanders 등(1984)에 의한 형용사 척도인 SD법은 문항이 간단하여 요즘 연구들의 척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SD법은 대상이 서로 다른 집단 간의 비교연구에 매우 효과적인 도구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에게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1990년 전후해서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조명희(1974)는 Tuckman과 Lorge의 조사문항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10개 영역으로 나누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10개 영역은 ①보수적 경향 ②관심과 취미생활 ③경제적 문제 ④신체적 문제 ⑤가족관계 ⑥인성 ⑦현재와 미래에 대한 태도 ⑧불안감 ⑨정신기능의 쇠퇴 ⑩간섭 등으로 되어 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노인에게 대한 태도는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부정적 문항에 대한 동의율 57.5%)를 보였으며 영역별로 보면 보수적 경향(79.1%), 관심과 취미생활(65.1%), 불안감(64.7%), 신체적 문제(63.4%), 현재와 미래에 대한 태도(60.8%), 경제적 문제(53.7%), 정신기능의 쇠퇴(47.8%), 가족관계(47.6%), 인성(47.3%), 간섭(45.3%)의 순으로 부정적 반응률이 나타났는데, 6개 영역은 부정적 반응률이 50%이상을 넘고 4개 영역은 50%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박정란·이영숙(2001)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노인의 고정관념을 조사하였는데 우리나라 대학생은 노인에게 대해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기보다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한정란(2000)은 Sanders 등이 제작한 노인에게 대한 측정도구 중 2개의 형용사 쌍을 제외한 18개의 형용사 쌍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태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우리나라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다소 부정적(7점 척도에서 4.43)으로 보고하였다. 김영숙(2002)은 도시와 농촌의 중고등학생들이 노인들에 대해 갖는 인식에 대해 17문항으로 된 SD법으로 조사하였는데 도시와 농촌의 중고등학생들은 노인에 대해 약간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전국 180개의 표본 조사구의 9,308가구에 대한 노인생활실태를 조사한 보건복지부(2005)에 의하면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신체적(정정하다-노쇠하다), 지적(현명하다-둔박적이다), 정서적(낙천적이다-비관적이다), 경제적(경제적으로 독립적이다-경제적으로 의존적이다)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경제적 영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59.3%로 가장 높으며, 지적 영역 55.1%, 신체적 영역 54.5%, 정서적 영역 48.6%의 순으로 정서적 영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가장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노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에 대하여 응답자들의 약 1/2 정도만이 동의하는 경향이 있어,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어서 노인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은 우리 사회에서 그리 설득력 없는 왜곡된 이미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노인에 대한 태도 측정 방법으로 노인에 대한 오해(misconception)와 상투적 관념(stereotypes)으로 구성되는 문항을 사용한 연구들과 노인에 대한 태도를 정서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형용사 쌍들로 이루어진 노화의미분별척도(Aging Semantic Differential Scaling: SD법)를 사용하는 연구들로 분류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요즈음 연구들의 척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형용사 척도인 SD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2.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여러 선행연구에서 노인과의 경험으로 보고되고 있다. Bekker와 Taylor(1966)는 Tuckman과 Lorge의 조사문항을 수정하여 남녀 대학생들에게 조사한 결과 노인과 동거하는 학생이 동거하고 있지 않은 학생보다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조부모 역할이나 다른 세대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차용은, 1980; Janelli, 1988)의 결과를 보면 조부모나 중요한 노인과 젊은이와의 관계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어서 이러한 관계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수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최강호(2001)는 농촌 초·중·고생의 노인에 대한 인식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며 가족과 조부

모간에 대면접촉과 전화접촉이 많을수록 노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한정란(2000)은 Sanders 등이 제작한 노인에 대한 측정도구 중 2개의 형용사 쌍을 제외한 18개의 형용사 쌍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태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노인과의 의미있는 경험은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영숙(2002)은 도시와 농촌의 중고등학생들이 노인들에 대해 갖는 인식에 대해 17문항으로 된 SD법으로 조사하였는데 조부모와 교류가 많을수록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반면 임인혜(1987)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동거경험이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노년학 교과목 수강경험을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하고 있는 연구도 있다. 박경란·이영숙(2002)은 노인을 묘사하는 단어를 5단계로 측정하는 20문항으로 조사도구를 구성하여 노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노년학 교과목 수강 경험을 통해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수강 전 검사에서는 평균 54.93(20문항-5점 척도), 수강 후 검사에서는 62.18로 사전 사후 검사 결과 모두 중립적인 태도이지만 수강 후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노인에 대한 간접 경험을 통해서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된 결과이다.

노인과의 경험 외에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교육으로 보고하고 있는 연구도 있다. 조병희(1974)는 Tuckman과 Lorge의 조사문항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10개 영역으로 나누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고등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지역, 성별, 노인과의 경험유무, 종교보다는 어렸을 때의 가정교육에서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노인에 대한 태도를 다른 연령층에 대한 태도와 비교해서 제시한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Axelrod와 Eisdorfer(1961)는 Tuckman과 Lorge의 조사문항을 사용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해서만이 아닌 35세, 45세, 55세, 65세, 75세된 사람들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 결과 35세, 45세에 대해서는 30% 정도의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55세에 대해서는 40%정도, 65세에 대해서는 55%, 75세에 대해서는 60% 정도로 연령이 높을수록 이들에 대한 태도가 좀더 부정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윤성혜(1990)는 노인에 대한 인식을 청년, 중년, 노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노년층이 노인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청년층이 중년층보다 노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김영숙(2002)은 도시와 농촌의 중고등학생들이 노

인들에 대해 갖는 인식에 대해 17문항으로 된 SD법으로 조사하였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긍정적 이미지가 감소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인과의 경험, 노년학수강경험과 같은 노인에 대한 간접 경험, 가정교육, 노인의 연령 등이며, 그중에서도 노인과의 경험이 많은 연구에서 영향요인으로 밝혀지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노인과의 경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중고등학생, 대학생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의 대상은 노인을 직접·간접으로 부양해야 하는 주부이기 때문에 노인 특히 노부모와의 동거 경험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일반적인 변인들과 함께 다루고자 한다.

Ⅲ. 연구문제 및 방법

1. 연구문제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노인에 대한 주부의 태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노인에 대한 주부의 태도는 관련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노인에 대한 주부의 태도는 부모를 모신 경험 유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조사방법

본 연구는 청주지역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질문지 조사를 이용한 실증연구이다. 2004년 9월 1일부터 2004년 10월 20일 사이에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조사된 390부 중 부실 기재된 9부를 제외하고 381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포, 백분율,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노인에 대한 태도 문항은 요인분석을 통해 영역을 나누었다. 또한 시부모를 모신 경험유무와 친정부모를 모신 경험 유무를 기준변수로 하여 비계층적 군집방법(K-means)을 실시하여 네 개의 세부집단으로 분리하였으며 이들 세부집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 Duncan Multifl Range Test를 실시

하였다.

3. 조사도구

노인에 대한 태도 측정 도구는 Sanders 등(1984)의 20 문항으로 구성된 노화의미분별척도(Aging Semantic Differential Scaling), 한정관(2000), 박경란·이영숙(2001), 김영숙(2002)등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응답자들은 개인이 노인에 대한 그들의 느낌, 또는 믿음에 따라 각 문항에 대해 답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도구는 상반되는 형용사 쌍으로 구성된 각 문항에 대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주부의 노인에 대한 태도의 하위영역을 분석하기 위하여 eigenvalue 1.0이상으로 varimax 회전방식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표 1 참조). 4개의 요인에 의한 설명력은 전체 변량의 53.47%로 나타났다. 요인1은 노인이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로 되어 있어 '역량'으로 명명하였고, 요인2는 노인에 대하여 일반적 느껴지는 특성들로 되어 있어 '인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3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특성들로 되어 있어 '수용'으로 명명하였고, 요인4는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활동할 때 나타나는 특성들로 되어 있어 '활동'으로 명명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8861 이고, 하위척도의 신뢰도는 역량 .8168, 인성 .7599, 수용 .7651, 활동 .7175 이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학력, 취업유무, 배우자유무, 월평균소득, 부모와의 동거여부, 자녀수, 종교, 결혼기간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시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친정부모와의 관계만족도, 결혼만족도, 시부모와 동거경험, 친정부모와 동거경험 등의 가족관계적 특성으로 나누어 해석하였다.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 주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조사 대상 주부의 연령별 분포는 30대가 34.6%로 가장 많고 40대 33.9%, 50대 31.5%로 나타났다. 주부의 학력은

〈표 1〉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Variance
보수적인-진취적인	.519				17.581
부정확한-정확한	.526				
의존적인-독립적인	.608				
소극적인-적극적인	.643				
비사교적인-사교적인	.554				
둔한-민감한	.670				
비생산적인-생산적인	.652				
방관적인-참여적인	.632				
어리석은-현명한		.519			13.373
단정치 못한-깔끔한		.725			
나쁜-좋은		.688			
매력적이지 못한-매력적인		.589			
인내심이 없는-인내심이 있는		.629			
오만한-겸손한			.706		12.368
이해심이 적은-이해심이 많은			.668		
존경스럽지 않은-존경스러운			.634		
편협한-관대한			.668		
허약한-건강한				.783	10.151
생활이 무료한-활기찬				.812	
나약한-강인한				.622	
Eigenvalue	3.516	2.675	2.474	2.030	53.472

〈표 2〉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특성	구분			특성	구분		
	빈도	%			빈도	%	
연령	39세 이하	132	34.6	부모와의 동거여부	시부모 동거	41	10.8
	40-49세	129	33.9		친정부모동거	7	1.8
	50세 이상	120	31.5		핵가족	333	87.4
	계	381	100.0		계	381	100.0
학력	중졸 이하	49	12.9	자녀수	1명 이하	38	10.0
	고졸	193	50.7		2명	248	65.1
	대졸 이상	139	36.5		3명 이상	95	24.9
	계	381	100.0		계	381	100.0
취업 유무	무	258	67.7	종교	불교	100	26.2
	유	123	32.3		기독교	140	36.7
	계	381	100.0		천주교	39	10.2
배우자 유무	무	3	0.8		없음	102	26.8
	유	278	99.2		계	381	100.0
	계	381	100.0	결혼기간	9년 이하	52	13.6
월평균 소득	199만원 이하	89	23.4		10년-19년	175	45.9
	200만-299만	125	32.8		20년-29년	119	31.2
	300만-399만	92	24.1		30년 이상	35	9.2
	400만원 이상	75	19.7		계	381	100.0
	계	381	100.0				

고졸 50.7%, 대졸 이상 36.5%, 중졸 이하가 12.9%였다. 주부의 취업 유무는 무 67.7%, 유 32.3%로 전업주부가 많았으며 거의 대부분 배우자가 있었다. 조사 대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299만원이 32.8%로 가장 많았으며 300만원~399만원이 24.1%, 199만원이하가 23.4%였으며 400만원이상의 가정도 19.7%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주부들은 87.4%가 부부와 자녀 중심의 핵가족이었고

10.8%가 시부모와, 1.8%가 친정부모와 동거하고 있었다. 자녀수는 2명 65.1%, 3명이상 24.9%, 1명이하 10.0%로 2명이 가장 많았다. 종교는 기독교 36.7%, 없음 26.8%, 불교 25.2%, 천주교 10.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기간은 10년~19년이 45.9%로 가장 많았으며 20~29년이 31.2%, 9년 이하가 13.6%, 30년 이상이 9.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조사대상자의 가족관계 특성

특성	구분		빈도	%	특성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시부모 관계 만족도	불만족		18	4.7	시부모 동거 경험	없음		220	57.7
	보통		188	49.3		경험있음		120	31.5
	만족		175	45.9		현재모심		41	10.8
	계		381	100.0		계		381	100.0
친정부모 관계 만족도	불만족		2	.5	친정부모 동거 경험	없음		358	94.0
	보통		155	40.7		경험있음		16	4.2
	만족		224	58.8		현재모심		7	1.8
	계		381	100.0		계		381	100.0
결혼 만족도	불만족		12	3.1					
	보통		121	31.8					
	만족		248	65.1					
	계		381	100.0					

2) 조사대상자의 가족관계적 특성

조사대상주부의 가족관계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시부모와의 관계만족도는 보통 49.3%, 만족 45.9%, 불만족 4.7%의 순으로 보통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친정부모와의 관계만족도는 만족 58.8%, 보통 40.7%, 불만족 0.5%의 순으로 만족스러운 경우가 가장 많았다. 결혼 만족도는 전체의 65.1%가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부모와 동거 경험은 없음 57.7%, 경험있음 31.5%, 현재모심 10.8%로 동거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친정부모와 동거경험은 없음 94.0%, 있음 4.2%, 현재모심 1.8%로 거의 대부분 동거경험이 없었다. 조사대상 주부들은 시부모보다 친정부모와의 관계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친정부모를 모신 경험보다 시부모를 모신 경험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노인에 대한 주부의 전반적인 태도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는 2.95(5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해 더 긍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로 중립적인 범위(2.5에서 3.5)에 해당되었지만 약간 부정적인 편으로 치우쳐 있었다(표 4참조).

영역별로는 수용 3.29, 인성 3.27, 역량 2.76, 활동 2.59로 수용과 인성에 대한 태도가 활동과 역량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문항별로 보면 주부들은 인성 영역의 '나쁜-좋은(평균 3.47)'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수용 영역의 '보수적인-진취적인'(평균 2.42)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보수적인-진취적인' 문항만 중립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모두 중립적인 범위에 해당되었다. 그리고 중립적인 범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평가가

〈표 4〉 조사대상 주부의 문항별 태도 점수

	문항	평균	(SD)
역량	보수적인-진취적인	2.42	(1.06)
	부정확한-정확한	2.76	(1.07)
	의존적인-독립적인	2.59	(1.06)
	소극적인-적극적인	2.58	(1.04)
	비사교적인-사교적인	2.92	(1.01)
	둔한-민감한	2.79	(1.04)
	비생산적인-생산적인	2.63	(1.04)
	방관적인-참여적인	2.89	(.98)
	소계	2.76	(.76)
	인성	어리석은-현명한	3.35
단정치 못한-깔끔한		3.30	(.93)
나쁜-좋은		3.47	(.87)
매력적이지 못한-매력적인		2.88	(.88)
인내심이 없는-인내심이 있는		3.39	(1.03)
소계	3.27	(.71)	
수용	오만한-겸손한	3.12	(.96)
	이해심이 적은-이해심이 많은	3.14	(1.04)
	존경스럽지 않은-존경스러운	3.42	(.87)
	편협한-관대한	3.11	(.96)
소계	3.29	(.81)	
활동	허약한-건강한	2.55	(.87)
	생활이 무료한-활기찬	2.59	(.98)
	나약한-강인한	2.73	(1.00)
소계	2.59	(.78)	
전체	2.95	(.60)	

나온 문항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부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주며, 조사대상은 다르지만 여러 선행연구(Tuckman · Lorge(1952, 1953), Axelrod · Eisdorfer(1961), 조명희(1974), 한정란(2000)의 결과와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3. 관련변인에 따른 노인에 대한 주부의 태도

1) 사회인구학적 변인

노인에 대한 주부들의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표 5>와 같다. 전반적인 노인에 대한 태도는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영역별로는 인성에서 종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천주교를 믿는 주부의 태도가 가장 긍정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수용에서는 학력과 월평균 소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학력이 낮을수록 긍정적이었고, 월평균소득은 중간그룹(200만원-399만원)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가족관계적 변인

주부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가족관계적 변인은 <표 6>과 같다. 전반적인 노인에 대한 태도는 시부모관계만족도와 결혼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시부모관계만족도와 결혼만족도가 높은 주부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영역별로는 역량에서 시부모관계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만족도가 높은 주부의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인성에서는 시부모관계만족도와 결혼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만족도가 높은 경우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수용에서는 시부모관계만

족도, 친정부모관계만족도와 시부모동거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시부모관계만족도와 친정부모관계만족도가 높은 경우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시부모동거경험에 따라서는 동거경험이 없는 주부의 태도가 가장 긍정적이었고, 그 다음은 과거에 모신 경험이 있는 주부였으며, 현재 시부모를 모시고 있는 주부의 태도가 가장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임인혜(1987)의 연구에서 동거경험이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노인과의 경험이 노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한정란, 2000; 박경란·이영숙, 2001; 최강호, 2001; 김영숙, 2002).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주부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련되는 변인으로는 학력, 종교, 월평균소득, 시부모·친정부모관계만족도, 결혼만족도, 시부모와의 동거경험 등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낮은 주부, 천주교를 믿는 주부, 월평균소득이 중간정도인 주부, 시부모·친정부모와 관계가 좋은 주부, 시부모와 동거경험이 없는 주부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4. 노인과의 경험 유무 집단별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태도가 노인과의 경험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에 대한 주부의 경험을 시부모를 모신 경험유무와 친정부모를 모신 경험 유무에 따라 4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시부모

<표 5>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역량	인성	수용	활동	전체		역량	인성	수용	활동	전체
연령	NS	NS	NS	NS	NS	부모 동거여부	NS	NS	NS	NS	NS
학력	NS	NS	*	NS	*		종교	NS	*	NS	NS
취업유무	NS	NS	NS	NS	NS	월평균소득	NS	NS	**	NS	NS
결혼기간	NS	NS	NS	NS	NS						

*p<.05 **p<.01

<표 6> 가족관계 변인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역량	인성	수용	활동	전체		역량	인성	수용	활동	전체
시부모 관계만족도	***	*	***	NS	***	시부모 동거경험	NS	NS	*	NS	NS
친정부모 관계만족도	NS	NS	*	NS	NS		친정부모 동거경험	NS	NS	NS	NS
결혼 만족도	NS	*	NS	NS	*						

*p<.05 ***p<.001

〈표 7〉 시부모 모신 경험 유무와 친정부모 모신 경험 유무로 분류한 집단 빈도(%)

시부모 친정부모	모신 경험 무	모신 경험 유	계
모신 경험 무	209 (54.9)	149 (39.1)	358 (94.0)
모신 경험 유	11 (2.9)	12 (3.1)	23 (6.0)
계	220 (57.8)	161 (42.2)	381 (100.0)

를 모신경험은 없고 친정부모를 모신경험이 있는 집단 2.9%, 시부모와 친정부모를 모두 모신 경험이 있는 집단 3.1%, 시부모를 모신 경험은 있고 친정부모를 모신경험은 없는 집단 39.1%,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 모신경험이 없는 집단 54.9%로 모두 모신 경험이 없는 집단이 가장 많았다.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집단의 특성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집단의 특성은 <표 8>과 같이 연령, 월평균소득, 결혼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별로 볼 때 39세 이하는 시부모와 친정부모를 모두 모신 경험이 없는 집단에 많았고, 40-49세는 시부모와 친정부모를 모두 모신 경험이 없는 집단과, 시부모 모신경험은 있고 친정부모를 모신경험은 없는 집단에 많았고, 50세이상은 시부모 모신경험은 있고 친정부모를 모신경험은 없는 집단에 많았다. 월평균소득별로 볼 때 399만원이하의 세그먼트는 시부모와 친정부모를 모두 모신 경험이 없는 집단에 많았고, 400만원이상은 시부모 모신경험은 있고 친정부모를 모신경험은 없는 집단에 많았다. 결혼기간별로는 19년이하의 두그룹은 시부모와 친정부모를 모두 모신 경험이 없는 집단에 많았고, 20년 이상의 두그룹은 시부모 모신경험은 있고 친정부모를 모신경험은 없는 집단에 많았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연령이 적은 경우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 모시지 않는 경향이 있었고, 연령이 많은 경우 시부모만 모시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월평균소득별로는 소득이 많은 경우 시부모만 모신 집단이 많았다. 그리고 결혼기간이 짧은 경우 부모를 모시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집단 특성

%

변인	구분	시부모경험유	시부모경험무	시부모경험유	시부모경험무	계	χ ²
		친정부모유	친정부모무	친정부모유	친정부모무		
연령	39세이하	7.1	26.5	.5	.5	34.6	44.738***
	40-49세	15.0	16.5	.8	1.6	33.9	
	50세이상	17.1	11.8	1.8	.8	31.5	
	계	39.1	54.9	3.1	2.9	100.0	
학력	중졸이하	6.6	5.5	.5	.3	12.9	9.166
	고졸	21.5	26.2	1.6	1.3	50.7	
	대졸이상	11.0	23.1	1.0	1.3	36.5	
	계	39.1	54.9	3.1	2.9	100.0	
취업유무	무	25.7	38.6	2.4	1.0	67.7	6.151
	유	13.4	16.3	.8	1.8	32.3	
	계	39.1	54.9	3.1	2.9	100.0	
월평균소득	199만원 이하	9.4	12.1	.5	1.3	23.4	19.750*
	200만-299만	10.5	20.2	1.6	.5	32.8	
	300만-399만	8.9	14.2	1.0	-	24.1	
	400만원 이상	10.2	8.4	-	1.0	19.7	
	계	39.1	54.9	3.1	2.9	100.0	
종교	불교	10.2	14.2	1.0	.8	26.2	9.093
	기독교	16.3	18.4	1.6	.5	36.7	
	천주교	2.6	6.8	.3	.5	10.2	
	없음	10.0	15.5	.3	1.0	26.8	
	계	39.1	54.9	3.1	2.9	100.0	
결혼기간	9년 이하	3.1	10.5	-	-	13.6	38.171***
	10년-19년	15.0	28.1	1.0	1.8	45.9	
	20년-29년	15.5	13.9	1.0	.8	31.2	
	30년 이상	5.5	2.4	1.0	.3	9.2	
	계	39.1	54.9	3.1	2.9	100.0	

*p<.05 . ***p<.001

<표 9> 가족관계변인에 따른 집단특성

%

변인	구분	시부모경험유 친정부모유	시부모경험무 친정부모유	시부모경험유 친정부모유	시부모경험무 친정부모유	계	X ²
결혼만족도	불만족	2.4	.8	-	-	3.1	9.448
	보통	13.4	16.0	1.0	1.3	31.8	
	만족	23.4	38.1	2.1	1.6	65.1	
	계	39.1	54.9	3.1	2.9	100.0	
시부모관계 만족도	불만족	3.1	1.6	-	-	4.7	23.448***
	보통	21.0	24.1	1.3	2.9	49.3	
	만족	15.0	29.1	1.8	-	45.9	
	계	39.1	54.9	3.1	2.9	100.0	
친정부모관계 만족도	불만족	-	.5	-	-	.5	8.283
	보통	18.9	19.7	.8	1.3	40.7	
	만족	20.2	34.6	2.4	1.6	58.8	
	계	39.1	54.9	3.1	2.9	100.0	

***p<.001

2) 가족관계 변인에 따른 집단의 특성

가족관계 변인에 따른 집단의 특성은 <표 9>와 같이 시부모관계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시부모관계만족도가 낮은 집단은 시부모모신경험은 있고 친정부모를 모신경험은 없는 집단에 많았고, 시부모관계만족도가 보통이상인 집단은 시부모와 친정부모를 모두 모신 경험이 없는 집단에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시부모를 모신 경험이 시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불만을 높아지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집단의 노인에 대한 태도

주부의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집단별로 보았을 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시부모와 친정부모를 모두 모신 집단이 3.25, 친정부모만 모신집단 3.18, 모두 모시지 않은 집단 2.95, 시부모만 모신집단 2.91로 시부모와 친정부모를 모두 모신 집단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표 10 참조).

(1) 영역별 태도

영역별로는 수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친정부모만 모신 집단 3.82, 시부모만 모신 집단 3.13으로 친정부모만 모신집단이 시부모만 모신 집단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른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시부모만 모신 집단이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2) 문항별 태도

문항별 노인에 대한 태도에서 긍정적인 범위(3.5이상)

에 해당되는 경우는 시부모와 친정부모를 모두 모신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5문항, 친정부모만 모신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3문항으로 나타났다.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문항은 친정부모만 모신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존경을 묻는 문항으로 평균 4.18이었다. 반면 부정적인 범위(2.5이하)에 해당되는 경우는 시부모와 친정부모를 모두 모시지 않은 집단과 시부모만 모신 집단에서 각각 1문항, 친정부모만 모신집단에서 2문항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문항은 보수성을 묻는 문항으로 평균 2.27이었다.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문항은 6문항으로 나타났다는데, 사교성을 묻는 문항에서 시부모와 친정부모를 모두 모신 집단이 3.58로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시부모만 모신집단이 2.79로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겸손을 묻는 문항에서는 시부모와 친정부모를 모두 모신 집단이 3.64로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시부모만 모신집단은 2.98로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존경에 대한 문항에서는 친정부모만 모신 집단이 4.18로 다른 집단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관대함을 묻는 문항에서는 친정부모만 모신 집단이 3.82로 시부모만 모셨거나(2.94) 모두 모시지 않은 집단(3.17)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친정부모를 모신 경험은 노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시부모를 모신 경험은 노인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집단의 노인에 대한 태도

문항	시부모경험유		시부모경험무		F값	
	친정부모우	M D	친정부모우	M D		
역량	보수적인-진취적인	2.36	2.47	2.58	2.27	.496
	부정확한-정확한	2.64 a	2.80 ab	3.00 ab	3.36 b	2.136
	의존적인-독립적인	2.56 a	2.58 a	3.25 b	2.55 a	1.616
	소극적인-적극적인	2.60	2.56	2.92	2.55	.477
	비사교적인-사교적인	2.79 a	2.96 ab	3.58 b	3.18 ab	2.931*
	둔한-민감한	2.75	2.80	3.08	2.82	.398
	비생산적인-생산적인	2.58	2.64	2.83	2.91	.510
	방관적인-참여적인	2.92	2.83	3.33	3.18	1.473
계	2.73	2.77	3.17	2.82	1.269	
인성	어리석은-현명한	3.23 a	3.41 ab	3.50 ab	3.82 b	2.447
	단정치 못한-깔끔한	3.30 ab	3.28 ab	3.17 a	3.82 b	1.249
	나쁜-좋은	3.41 a	3.48 a	3.42 a	4.09 b	2.135
	매력적이지 못한-매력적인	2.89	2.84	3.17	3.09	.804
	인내심이 없는-인내심이 있는	3.30	3.43	3.58	3.55	.751
계	3.21	3.28	3.42	3.64	1.477	
수용	오만한-겸손한	2.98 a	3.18 ab	3.33 ab	3.64 b	2.622*
	이해심이 적은-이해심이 많은	2.97 a	3.20 ab	3.67 b	3.64 b	3.421*
	존경스럽지 않은-존경스러운	3.35 a	3.43 a	3.50 a	4.18 b	3.199*
	편협한-관대한	2.94 a	3.17 a	3.50 ab	3.82 b	4.618**
계	3.13 a	3.36 ab	3.58 ab	3.82 b	4.663**	
활동	허약한-건강한	2.52	2.57	2.75	2.36	.502
	생활이 무료한-활기찬	2.54	2.62	2.75	2.45	.393
	나약한-강인한	2.72	2.73	2.83	2.82	.078
계	2.54	2.61	2.83	2.59	.624	
전체	2.91	2.95	3.25	3.18	1.760	

*p<.05 **p<.01

V. 요약 및 결론

노인의 부양과 교류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주부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 규명을 통해 노인세대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노인들의 적응과 삶의 질 향상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태도와 관련된 변인을 심층 분석하여 노년기 적응과 삶의 질 향상 방안과 노인과의 세대 간 이해 형성을 체계화 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본 연구의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부의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는 중립적인 범위에 해당되었지만 약간 부정적인 편으로 치우쳐 있었으며, 영역별로는 수용과 인성에 대한 태도가 활동과 역량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활동영역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는데 이는 노화로 인한 활동 능력 저하 현상에 대해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결과이며, 노년기의 수용성에 대해 다른 영역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우리사회의 노인에 대한 공경의 가치관이 아

직 우리 주부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관련변인별로는 학력이 낮은 주부, 천주교를 믿는 주부, 월평균소득이 중간정도인 주부, 시부모·친정부모와 관계가 좋은 주부, 시부모와 동거경험이 없는 주부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학력이 낮은 주부는 학력이 높은 주부보다 우리의 전통적 사고가 많이 남아 있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천주교는 우리 사회에 접목될 때 경로 효친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수용하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천주교를 믿는 주부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노부모와의 좋은 관계는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시부모와 동거하면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생활하게 될 경우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고부관계향상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부모와의 갈등 해결 방법 등 가족생활교육 실시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노인에 대한 주부의 경험을 시부모를 모신 경험 유무와 친정부모를 모신 경험 유무에 따라 4개의 집단으

로 분류하였는데, 연령이 적은 경우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 모시지 않는 경향이 있었고, 연령이 많은 경우 시부모만 모시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월평균소득별로는 소득이 많은 경우 시부모만 모신 집단이 많았으며 결혼기간이 짧은 경우 부모를 모시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집단의 문항별 노인에 대한 태도 중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문항은 친정부모만 모신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존경을 받는 문항으로 평균 4.18로 매우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친정부모를 모신 경험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 주부의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집단별로 보았을 때 시부모와 친정부모를 모두 모신 집단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시부모와 친정부모를 모두 모신 집단이 친정부모만 모신 집단보다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시부모와 친정부모를 모두 모시면서 양쪽 노부모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노인에 대한 주부의 태도는 비교적 부정적이었으며 시부모를 모신 경험은 노인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친정부모를 모신 경험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오히려 시부모와 친정부모를 모두 모신 경험은 노인에 대한 이해 증진의 기회로 작용하여 노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결론으로 볼 때 시부모와의 관계향상, 특히 고부관계 향상을 위한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고부관계향상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서 노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전환시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전반적인 고부관계를 다루는 가족생활교육은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각 지역의 건강가정센터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고부관계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노부모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중년며느리를 위한 고부관계향상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는 노화현상·노부모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기·노부모와의 대화법 등을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노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한·두회기의 노부모·며느리 공동참여가 아니고 전회기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해서 실시하게 되면 더욱 효과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부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데 보다 다양한 측면의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만족도, 여가활동 등 노인에 대한 직접적인 분야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는데 앞으로는 노인에 대한 태도 등 우리 사회의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야를 개발해 노인들이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폭넓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연구가 시도되어야 하며 노인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노인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겠다.

주제어 : 노인에 대한 태도, 주부의 태도

참 고 문 헌

- 고보선, 유용식 (2004) 노인학대 유형별 대처전략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3, 83-105.
- 김순예 (2005) 노인학대 이해 및 접근. 충북노인학대예방센터 자료집.
- 김영숙 (2002) 중고등학생의 노인이미지에 대한 도시와 농촌의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 21(2), 71-83.
- 박경란, 이영숙 (2002) 대학생이 갖고 있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분석. 한국노년학, 21(3), 29-41.
- 박경란, 이영숙 (2002) 노년학 교육이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1(3), 29-41.
- 보건복지부 (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정책보고서, 2005-03.
- 장인협, 최성재 (2003) 노인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윤성혜 (1990) 청년·중년·노년층의 노인에 대한 인식비교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인혜 (1987) 한국청소년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명희 (1974) 노인에 대한 고등학생의 태도 분석.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명희 (2003)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인식. 한국생활과학회지, 12(1), 15-24.
- 차용은 (1980) 노인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연구. 전주대학 논문집, 9, 239-262.
- 최강호 (2001) 농촌 초·중·고생의 노인부양의식. 한국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정란 (2000)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3), 115-127.

- 橘覺勝 (1952) 老年學. 誠信書房. 211-212.
- Axelrod S, Eisdorfer C (1961) Attitudes toward Old People. *Journal of Gerontology*, 16, 75-80.
- Bekker LD, Taylor C (1966) Attitudes toward the Aged in a Multigenerational Sample. *Journal of Gerontology*, 20, 75-80.
- Janelli LM (1988) Depictions of Grandparents in Children's Literature. *Educational Gerontology*, 14(3), 193-202.
- Sanders GF, Montgomery JE, Pittman JF, Bolkwel C (1984)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3(1), 59-70.
- Tuckman J, Lorge I (1952) The Influence of a Course on the Psychology of the Adult on Attitudes toward Old People and Old Worker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43, 400-407.
- Tuckman J, Lorge I (1953) The Effect of Family Environment on Attitudes toward Old People and Old Worker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8, 207-218.

(2005. 11. 21 접수; 2006. 01. 31 채택)